

장년 일자리 확대... 광주시, ‘빛고를50+’ 힘찬 출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빛고를 50+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고, 장년층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빛고를 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행사는 50+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 안내와 참여자 선서, 특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빛고를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중장년 50+ 정책’의 하나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층이 지역사회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생애 재설계형 일자리다. 이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일자리 참여인원을 250명에서 2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사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일자리의 다양성을 높였다. 올해 사업에는 총 9개 분야에 9억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50+문화시설 지원단 ▲운영지원 이음파트너 ▲꽃집도시 광주 온라인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서



광주

5 빛고를 50+일자리 사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고를 50+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전문성·경험 살린 9개 분야에 280명 참여... 9억8000만원 투입

재취업·사회봉사 연계 생애 재설계 지원... 시민사회 기여 기대

포터즈 ▲무등산 재난안전 지원단 ▲뇌블럭&책놀이활동 지원단 ▲사회서비스 안전지킴이 ▲빛고를 출장조리사 ▲찾아가는 원예활동사(신규) 등이다. 참여자는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빛고를50+일자리에 참여하는 장년층들은 산업화, 민주화,

IMF 등을 겪으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사회에 전달하며 봉사하고자 모였다”며 “이들은 어느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한 멋진 어른이다.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종팔 기자

‘15만~5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별 차등 가닥... 조만간 확정

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당정, 2차 추경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할 듯

일반국민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방안 거론

두차례 분리 지급 방안 거론... 2차때 고소득층 제외

고소득층 안주거나 지급액 깎는 방안은 당정간 이견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그 밖의 소득 계층에서도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

을 집어넣자는 취지인 만큼 굳이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존 전달체계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드는 건 빠르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하지만 3년 연속 ‘세수 핑크’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과 모

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도록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남농업기술원, 유자씨 활용한 ‘오일세럼’ 출시

버려지는 부산물 기술 개발해 특허 출원·기술이전 성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이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주)하이솔과 유자씨 오일을 첨가한 ‘오일세럼’을 출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유자 가공공장 등에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3천 톤의 유자씨가 산업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 비용만도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버려지는 유자씨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2023년 시제품을 제작하고, 2024년 ‘피부 마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이전받은 하이솔은 올해 4월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자사 브랜드 ‘림포디아’ 누리집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향후 스토어팜, 주요 오픈

마켓 입점 등 다양한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한 홍보·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미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제품은 소비자 체험단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테스트를 거쳐 완성했다.

김행란 원장은 “특히 기술로 제작한 상품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유자 부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유자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여름철 호우·폭염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시군·농협 30일까지 집중 가입 기간 운영

전라남도는 올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가입 기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주요 품목(11종)을 대상으로 가입률(목표율 80%)을 높이기 위해 시군, 농협과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가입 품목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삼, 고랭지 배추·무, 참다래, 콩, 팥, 녹두다.

올해부터 벼(영광), 콩, 옥수수 품목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품목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읍면동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가입 안내 문자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재해보험 가입 중점 홍보 등에 나서고,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 가입자 중 올해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

기로 했다.

현재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벼 20일까지 ▲대파 20일까지 ▲가루쌀 7월 20일까지 ▲참다래 7월 4일까지 ▲콩 7월 18일까지 ▲고랭지배추·무 7월 25일까지 ▲팥 8월 17일까지 ▲인삼 10월 31일까지다. 또한 무안과 신안에서는 올해 시범 추진하는 ▲녹두는 8월 8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옥수수는 13일까지 완료됐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안전한 영농과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보험 가입비의 90%를 지원하는 만큼 가입 기간에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로 전국 평균(64%)을 15%나 웃돌았다. 그 결과 벼멸구, 호우 피해를 입은 3만 6천여 벼 재배 농가에 보험금 1천107억 원이 지급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